



블로그 홀릭들의 사랑방, '블패모'

블로그는 온라인 세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는 블로그의 매력에 중독돼 하루라도 블로그에 접속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패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 소위 블로그 홀릭(Blog holic)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검색엔진 전문 업체 '코리아와이즈넷' 솔루션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유동희 대리는 이 블로그 홀릭들이 모이는 카페의 주인이다. 이듬하여 '블로그 패인들의 모임(cafe.naver.com/blogholic, 차별화를 원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패인' 대신 '패인'으로 바꿨다. 이하 블패모)'인 이 블로그는 2003년부터 운영되던 동호회인데, 작년 8월부터 유동희 대리가 2대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수는 71명으로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정도로 회원들의 블로그에 대한 애정이 깊다. 말하자면 '소수정예' 회원들이라고나 할까.

"이 블로그는 정말 편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게 해주지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이 있는 모임입니다."

간혹 온라인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 그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블패모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처음 만나도 몇년지기를 만나

는 것처럼, 어떤 땐 친구보다도 더 편한 존재로 다가온단다. 블패모의 정모와 번개모임을 위한 '우리 만나요' 게시판은 블패모의 독특한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원동력이다. 정모의 계획부터 후기, 그리고 사진까지 회원 각자가 알아서 꼼꼼히 올린다. 이러한 돈독한 정과 자유로움이야말로 멤버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밖에도 웹서핑을 하다가 좋은 글이나 그림을 발견하면 블로그로 가져와 함께 공유한다. '쿵쿵따'란 게시판은 말끝잇기를 응용해 각자의 생각을 담은 블패모만의 재미있는 게시판이다.

유동희 씨는 블로그를 통해서 형성된 인맥을 소중히 하고자 노력한다. "회원들끼리 서로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고, 오고가며 발견한 인상 깊은 블로그는 다른 회원들에게 추천도 합니다. 또 유용한 블로그 운영법이 있으면 함께 공유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챙겨주는 따뜻한,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블로그 운영철학이죠."

유동희 대리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 프로그래밍 정보를 주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좀 더 많은 블로그 이웃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온라인이란 공간에서 사람 냄새 나는 블로그를 꾸미는 그녀의 모습에서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한다.